

1백여년 미술인 인명록을 출간

‘걸어다니는 미술사전’ 金達鎭소장 4909명 기록 펴내

「걸어 다니는 미술사전」이란 별명의 미술자료 전문가 金達鎭(55) 미술연구소장이 31년의 꿈을 현실로 이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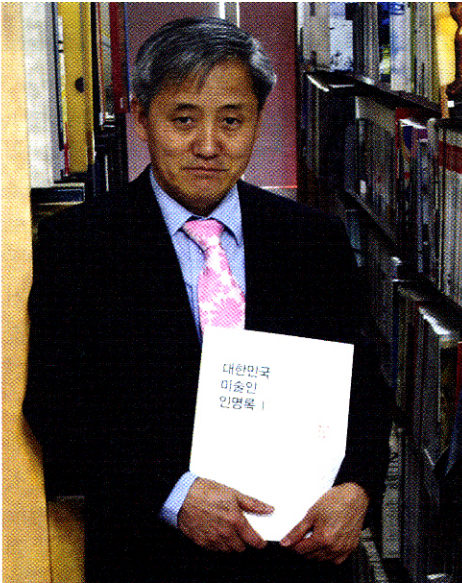
그후 매일 신문을 체크해 스크랩을 만드는 것은 물론 현책방과 자료를 얻을 만한 곳은 어디든 달려가 모으기 시작 했다. 이렇게 미술계 개

학, 1993년 서울산업대 금속 공예과를 졸업했고 99년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졸업 했다.

이로인해 金소장의 미술사랑은 탄탄대로를 달렸다. 국립현대미술관을 떠나 96년 가나아트센터로 자리를 옮겨 자료실장·닷컴 총괄팀장을 역임 했다.

그는 2001년 우리나라 미술자료 전문가 1호라는 명성에 걸맞게 독보적인 토대를 구축 했다. 바로 김달진미술연구소로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개설하고 소장에 취임 했던 것. 다음해 월간 서울아트가이드를 창간 편집인으로 활약, 지난 4월호를 내므로써 지령 100호를 맞았다.

무엇보다 미술계를 깜작 놀라게 한것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전시한 2008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개관이다. 이



▲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 펴낸 金達鎭소장과 인명록.

金소장은 2010년 3월31일 4909명의 미술인을 수록한 <대한민국 미술인 인명록>을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인명록에는 서양화·한국화·조소(설치미술과 행위 미술 포함) 작가 뿐만아니라 평론가와 전시기획자등 미술계에 종사하는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수록했다.

지금까지 나온 미술인 인명록은 주로 조선시대 작가들로 근·현대 작가를 총망라한 인명록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명록에는 채용신(1580~1941년)부터 현재 활동중인 사석원(1960~)까지 1850년부터 1960년에 태어난 50세 이상 작가 4254명과 40세 이상 비창작분야 655명이 수록돼 있다.

그가 미술인 인명록을 만들게 된 동기는 31년전인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 간다. 전해에 월간 <전시계>라는 미술 전문 잡지사 기자로 입사하면서 한국 근대작가 작가들을 연재하면서 조사하게 된것이 시초가 됐다.

(展)을 관람하면서 부터다. 여기서 작가에 대한 자료가 미흡한 것을 보고 제대로 모아 봐야겠다고 결심했다. 물론 취미에 불과했다. 서양미술의 명화를 오래 수집하고 있던 터여서 관심은 더욱 쏠렸다.

金소장은 대학진학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1978년 미술잡지 전시계(展示界) 기자로 입사해 3년동안 근무하면서 인명록의 꿈을 키웠다. 잡지사 일을 그만두고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1981년. 그러나 자료실 일용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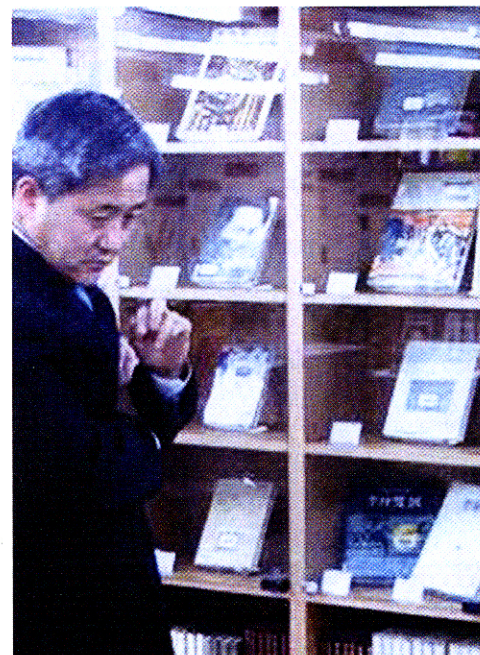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터 시험이 있었는데 자격요건이 대학졸업이상이 었기 때문에 시험을 볼수가 없었어요” 그는 학력때문에 발목이 잡혔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대학에 진

미술계의 개척자... 모은 자료로 박물관 개관

고졸의 설움 딛고 없어서는 안될 독보적인 인물로
김달진 미술연구소 운영하며 “인명사전 만들겠다”기염

박물관에는 1만여권에 달하는 단행본, 331종 8천여권의 정기간행물, 4백여편의 논문, 4백여편의 미술자료집, 70년



▲ 金達鎭 미술자료박물관 전시장

대부터 주요 미술기사, 280명 작가의 작품도판과 기사를 모은 스크랩북등 모두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특히 金소장이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조선총독부 조선미술전람회 도록(1926년), 일본인 관학자 세키노다다시가 쓴 조선미술사(1932년), 한국 최초 원색도판 화집인 오지호 김주경 2인화집(1938년), 54

金소장은 이어 이번에 미술인 인명록을 출간하면서 다시 한번 미술계를 경악케 했다. ‘미술자료 수집광’ ‘아름다운 괴짜’ 등 무수한 닉네임이 붙어있는 金達鎭소장.

미술계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한 기념으로 ‘미술인 인명록 출간 및 서울아트가이드 100호기념’ 축하연이 4월12일 김달진미술자료 박물관에서 열려 문화예술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金소장은 “인명록을 내겠다고 마음을 먹은지 31년만에 꿈을 이뤘다”며 “앞으로 몇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인물에 대한 평가를 결정한 인명사전도 만들고 싶다”고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잊지 않는다.

그의 이같은 열정은 정부와 예술계에 일찍 두각을 나타내 문화부장관표창(92·08년), 월간미술대상 특별상(97년), 예총예술문화상 공로상(08년)을 수상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한국신지식인과 국립중앙박물관의 3급정학예사 자격증을 획득 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바로보는 한국의 현대미술’ 등 다수가 있으며 미술자료에 대한 2백여편의 글을 발표 했다. 이로인해 신문 잡지 TV 라디오에 무수히 등장 했다.

金소장은 義城金氏 시조 의성군(義城君 諱 錫)의 33세이며 참의공(參議公)파로 고향은 충북 옥천이다. <편집실>

정도.



▲ 서울아트가이드 100호기념 축하연(오른쪽 첫번째가 金소장, 오광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남조 시인)